

‘2018 평창 동계올림픽방송’ 특집호를 내며



서영우 수석

KBS



이상진 차장

SBS



이승호 팀장

MBC

2018년 2월은 우리나라의 방송미디어 기술에 있어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우리나라는 ICT 기술을 총동원하여 세계 방송계 및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ICT 올림픽을 위하여 정부와 방송계는 수년전부터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ICT 올림픽 이벤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UHD 모바일 시연입니다. 강원지역에서 UHD 방송을 실시하고 평창지역과 강릉 선수촌을 잇는 셔틀 버스 일부에 모바일 단말기를 설치하여 올림픽 방문객들에게 고화질 이동 서비스를 시연하였습니다. 산간지역의 고속도로에서도 끊기지 않는 방송 시연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의 미래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을 위한 ICT 체험관이 평창, 인천공항, 강릉 지역에 설치되어 한국의 주요 ICT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UHD, 5G, AR, AI, VR 등의 기술들이 시연되었습니다. 지상파 UHD 라이브 방송을 홈포털 부가서비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세컨드 스크린 및 VR 부가서비스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차세대 방송관, 복잡한 롤러코스터가 설치된 미니어처 랜드를 만들어 미니 열차에 5G기반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시뮬레이터와 VR 단말기를 통해 인형의 나라에서 모험을 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실제 크기의 4인승 볼스레이에 직접 탑승하거나 스노보드를 체험할 수도 있는 VR 관을 비롯하여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AR 기술을 이용해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로봇을 통한 실시간 번역 및 안내 AI 서비스 등이 관람객 및 선수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5G 기술과 어우러진 다양한 중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볼스레이 경기에선 썰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선수의 시점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중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긴장감 넘치는 영상을 연출하였으며 스포츠 경기의 신기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바이애슬론 경기에서는 선수들 각각의 위치를 전체 경기장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신기술을 실제 방송과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서 드넓은 벌판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어느 선수가 스피트를 하고 있는지 현장감 높게 보여주었습니다.

본 화회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ICT 방송기술이 접목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주요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본 특집호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특집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방송"이라는 주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빛냈던 주요 기술 및 서비스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의 6편의 원고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원고는 "평창 동계올림픽 UHD 방송 준비 및 프로덕션 과정"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흥미진진한 연출 과정을 선보인다. AR이 접목된 그래픽으로 표현된 고구려의 역사와 다양한 무대연출, UHD 카메라와 중계차를 통한 국제신호 제작과정 등 UHD 방송으로 기획된 평창올림픽 방송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고는 "MBC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동계올림픽의 국제방송센터에서 이루어진 국제방송신호의 제작과정을 방송회선구성, 주관방송사 선정, 사전시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설명합니다. 특히 MBC 스튜디오의 구성 및 각 파트의 역할을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스포츠 이벤트의 지상파 방송 제작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세 번째 원고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ATSC 3.0 표준기반 4K-UHD/모바일 HD 방송 추진 결과"로서 ATSC 3.0 방식으로 송출되는 지상파 UHD 방송이 평창지역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방송 신호가 송출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송신 및 수신지역의 전파 환경 시뮬레이션, 송신소의 송신 파라미터, 시험 송출 및 필드테스트 결과 등을 지도 및 측정데이터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UHD 송신 신호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고는 "지상파 UHD 모바일 방송 시범서비스 현황"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지상파 UHD 모바일 서비스 시연을 위해 현장 조사, 시험 방송, 테스트를 통한 수신환경 분석, 모바일 단말기 시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실제 시연과정에서 국내외에 리포트 된 내용과 함께 성공적인 시연 내용과 향후 모바일 방송의 전망을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원고는 "평창 동계올림픽 ICT체험관 UHD VR 부가 서비스 체험 시스템"으로서 평창 ICT 체험관의 인기 전시 코너였던 UHD와 연동되는 VR 부가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UHD 방송은 EPG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본 방송과 연계되는 세컨드 스크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VR 부가서비스는 지상파 방송과 함께 전송되는 별도의 콘텐츠로서 스마트 단말기 및 VR 단말기 상에서 현재 방송 보기, VR VOD 영상 보기, VR과 라디오 방송 스트리밍 감상하기 등 VR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비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고는 "에어플로팅스페이스기반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 플랫폼"으로서, 에어플로팅스페이스기반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 플랫폼 개발을 통해 스키 및 스키점프 체험플랫폼을 선보입니다. 현재 국립부산과학관에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객들에게 동계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 크게 활용된 바 있습니다.

본 특집호에서 소개된 방송기술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차세대 방송 서비스 기술들이 미디어에 접목되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ICT 방송 기술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ATSC 3.0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TV 방송서비스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방송미디어 시장을 이끌어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방송 4월 특집호의 출간을 위하여 좋은 원고를 기고해 주신 저자 분들, 특히 올림픽 방송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신 방송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특집호 완성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신 학회지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관리와 편집에 많은 도움을 준 학회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